

## 계시록 11 장

## 특별한 두 증인

계시록 11:1-2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자의 손에서 취한 책의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났다.

계시록 11장의 서두는 7장과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삽입적인 구절이다. 즉,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잠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증인을 보내시는 7년 환난 시기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11:1-2)

요한은 약 10피트 길이(약 3미터)의 갈대를 받고, 성전을 척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일은 대한난의 처음 반 시기 동안에 일어날 것인데, 교회가 들림받은 후 마지막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시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만, 7년 대한난 시기 도중에 그 언약을 깨뜨린다(단9:27). 나는 적그리스도가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마르 회교 사원'(Mosque of Omar)이라고 불리는 건물 아래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점점 확실시되는 것은 오마르 회교 사원이 헤롯 성전의 제사 드리는 마당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곳은 성소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당이었다. 많은 유대 학자들은 오마르 회교 사원의 북쪽 322피트(약 97미터) 떨어진 위치가 솔로몬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결코 그 성전 지역 위로 걸어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의 지성소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전 지역을 지나다가 부지중에 지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장소가 지성소였다면 솔로몬 성전의 바깥 마당이 현재 서 있는 오마르 회교 사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11:12)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유대인들이 지성소의 위치를 발견해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장소로 택한다면, 회교 사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오마르의 회교 사원은 회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만일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사원을 파괴한다면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성전(Holy War)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교상으로도 회교도 지역 내에 성전을 짓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대인들은 흠어지게 되어 있었다. 예수님도 그들이 흠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눅21:24), 다니엘과(단9:20-27), 모세는 물론(신32:26),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흠어질 것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예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1967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혔다. 계시록 11:2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잃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마흔두 달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되찾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계시록 11:3-5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대환난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두 증인이 있고, 또 14장에서는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들로 천사들을 이용하시기도 한다.

이 두 증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들이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메시아였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속자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11:3)

베옷은 선지자들의 의복으로서 종종 나라의 백성들이 범 죄함을 애 통하는 표로 입었다. 두 증인들은 3년 반(마흔두 달 또는 1,260일) 동안 범 죄한 백성을 비탄히 여기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예언 연수는 한 해가 360일이라는 바벨론 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므로써 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11:4)

스가라는 흥미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촛대 옆으로 자라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다. 감람나무의 가지는 촛대로 뻗어 있었고, 감람유가 나무에서 흘러나와 촛대에 채워져서 그 촛대에 영영히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성전의 촛대를 잘 살피고 날마다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잘라 주어야 했다. 스가라는 이렇게 매일 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감람유가 나무에서 직접 촛대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훌륭한 해결책을 마음속에 그렸다.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4:1-6). 이 환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두 촛대는 두 증인을 가리킨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큰 권세를 위임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그들이 권세를 갖게 된 후의 결과가 나타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11:5)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 아하시야 왕은 오십 부장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 오십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 인을 사를지로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오십 부장과 그의 오십 인을 불살랐다.

아하시야 왕은 다시 오십 인과 오십부장 보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세 번째 오십 부장과 오십 인이 보내졌을 때 오십 부장은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나 당신을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부디 나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와 함께 갔다(왕하1:15).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도성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우뢰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같이 대하는 것을 보고 번갯불을 내리려 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자신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케 함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함이니라”(눅9:54-56)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한 세상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 대환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될 것이다.

#### 계시록 11:6-7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덮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11:6)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자기가 명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하셨다(왕상17:1). 이와 같은 권세를 두 증인들도 가지고 있었다. 즉 예언한 기간에는 비가 없을 것이다.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증인에게는 남아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라고 믿는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을 보면 모세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구했다(요9:28). 하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기 때문이다.(신18:15)

그리고 나머지 한 증인이 엘리야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현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말4:5).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예표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마17:11).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말라기의 예언을 다시 반복하신 것이다.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은 확실하다. 다른 한 증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모세이거나 에녹이거나 아니면 스룹바벨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관계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다. 또는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추측일 뿐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11:7)

이 두 증인은 증거를 마칠 때까지 제거될 수 없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하신 손이 그들의 생명 위에 있기 때문이다.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계시록 17장에는 이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8절).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은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두 증인을 해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신다.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신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길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 계시록 11:8-14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하신 곳이니라(11:8)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한 매우 끔찍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이 언제나 예루살렘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대하7:16). 그러나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애굽, 육체, 소돔’이라고 부르신다.

두 예언자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놓일 것이다. 사람들은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낼 수 없고, 그들의 시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사흘 동안 방치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11:9)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시체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흥미롭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제아무리 빨리 그 시체를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전세계가 그 시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집에 앉아서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에 침을 뱉고 시체를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세계에 방송될 것이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11:10)

사람들은 도무지 진리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람은 서서 진리를 말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기뻐한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크리스마스 때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며 큰 축제를 베푼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11:11-12)

당신이 이 일을 증계하는 방송국의 카메라 기자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두 시체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11:13-14)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방대한 건설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 도시의 십분의 일이 지진으로 파괴된다면그 때의 참사와 황폐함이 어떨겠는가?

계시록 11:15

이제 다시 나팔 재앙으로 돌아간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을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들려올라가는 소식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과 일치시켜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전15:52).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갖다 맞추려는 시도로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11:15)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온 교회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이 기다려 온 바로 그 날인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히11:13)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히11:10). 그들은 하늘 나라를 고대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을 인내로 기다렸다.(히10:36-37)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고대하는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왜 그리도 가지 않는지,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버리는지 결혼을 위한 기대와 모든 준비의 시간들은 15분 만에 끝나버린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에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큰 음성이 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단이다.

아담의 죄값으로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을 대속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분이 값 주고 사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 주장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피로 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예수께서는 우리, 곧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다. 성령의 인이란 물건을 살 때 미리 보증금을 내어 놓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앞으로 올 세대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 계시록 11:16-17

선포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11:16)

이십사 장로들은 늘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11:17)

하나님께는 언제나 권세와 권능이 있다. 예수께서 속죄의 값을 치르신 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거의 2,000년(바벨론 역을 따르면)을 기다리셨다.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한다. 기다리라. 마치 농부가 추수 때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약5:7).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대해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 세상의 문제들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은 잃은 자에게 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벘후3:9)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믿게 될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창6:3)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가 끝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

#### 계시록 11:18-19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11:18)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시2:1)라고 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 헤롯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렀다. 그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마2:1-4)라고 물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낼 것을 염려한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내게 알려 주어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마2:8)고 말했다. 사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위협을 느낀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저들이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막11:18; 15:10).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동요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방들은 다시 분노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재림시에 예수님은 철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러 오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11:18-19)

다니엘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예언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12:2). 계시록 20장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천 년 왕국이 온다고 했다.